

전북도내 농식품, 중국시장 개척

도·생진원, 오늘부터 중국 창사·우한지역 대상 시장개척단 파견 1:1 상담회

전북도와 (재)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이하 생진원)은 농수산물식품의 중국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2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중국 창사와 우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현지 유통 바이어와의 1:1 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는 전북도 농식품의 주요 수출국으로 최근 사드 분위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이는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기 위함이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시장개척단은 KOTRA 현지 무역관의 시장성 평가를 거쳐 경쟁력이 있는 업

체를 엄선, 켈리 농축음료(임실 메트르비엔에프), 복분자가공 음료(고창 신도복분자), 천마발효고 황실진고(무주 남영제약), 천마홍삼 가공품(무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 군고구마 가공품(익산 그로스다임FNB), 액상차(전주 비온드FNB), 낫토키나야제(임실 콩마을), 고추장 소스류(순창 토당식품) 8업체가 참가한다.

전북도는 전북KOTRA지원단과 연계하여 중국 내륙 개발 거점 도시인 창사와 우한 지역에 시장 개척단 파견을 위하여 그간 꾸준히 도내 업체와의 상담 매칭을 해왔던 현지 50여

개 유통 바이어와 이번 파견 기간 내 1:1 수출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국 창사와 우한은 각각 후난성과 후베이성 성도로 각 지역의 인구가 1000만에 가까운 대도시이며 높은 한류 선호도와 소비성향이 매력적인 중국 내륙지역의 대표적인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이자 경제협력의 요충지이다.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은 현지 바이어들과의 1:1 수출상담 진행을 통해 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는 물론 현지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상품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 공격

적 시장개척의 실질적 성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시(창사, 우한)에서의 수출 상담에만 그치지 않고 현지 농식품 유통시장의 현황과 현지 소비자들의 우리 상품에 대한 반응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조호일 도 농식품산업과장은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으로 중국 내륙지역이 우리 전북상품 판로개척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시장개척단 운영 이후에도 참가 업체의 수출 거래 성사를 위해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지원하여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내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전북도선관위, 누락시 구·시·군청에 이의 신청도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5월 22일 현재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9시부터 6시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

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내에 구·시·군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6월 1일에 최종 확정된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대학발전을 위해 써주세요” (유)천일주택건설 김영일 대표가 25일 전북대에 대학발전기금 5억원을 쾌척했다. 사진은 김 대표가 전북대 이남호 총장을 비롯 한 보직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소통·협력 지역경제 활력

도, 민생경제원탁회의... GM 군산 비정규직 우선 채용 등 공유

전북도는 25일, 국민연금공단 전주·완주지사에서 2018년 제3차 전북도 민생경제원탁회의를 했다.

민생경제원탁회의는 전북도내 경제 관련 기관 단체장들과 정례적인 소통의 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정보교류와 협업체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45개 회원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 최정호 정부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도내 경제관련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 공유와 기관 간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북도는 한국GM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한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지역대체의 일환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일감확보를 위한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도 홍보 및 금융지원, 도내 기업이 인력채용 시 GM군산공장 비정규직 우선 채용과 정부지원제도 등을 공유했다.

또한,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최근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한 경제교류 협력사업 발굴을 제안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하여 관련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판로 지원, 용산역에 마련된 전북 비즈니스라운지 운영,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참여 및 전국(장애인) 체전 홍보, 도민 안전신고 생활화 등 다양한 도정 시책을 안내했다.

기관별로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의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동참 및 환경교육 활성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지원, 국도변 경관순터 조성 활용, 지하안전법 시행,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연안여객선 안전항로 확보, 새만금 신항(1단계) 개발사업 추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청년일자리·창업 대책 및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 전북지방소달청의 조달정책 안내, 고용노동부전주지청의 7.1 근로시간 단축 시행 관련 협조,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의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기관별 주요 시책에 대한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현재 전북도가 직면해 있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함께 공감하고, 각 분야별로 지역경제에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힘을 다짐하는 등 기관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유도하는 자리가 됐다.

최정호 정부부지사는 “도에 불어닥친 고용·산업 경제위기 극복은 전북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에, 경제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경제도약의 기회가 앞당겨 질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6·1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후보자 동향

“위기는 기회로·기회는 반드시 성공으로”

송하진 도지사 후보 “문화CT여행 등 11대 전략 추진할 것”

6·1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후보가 재선에 성공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 착수했다.



25일 송 후보는 전북도의회에서 첫 정책공약 발표 회견을 열고 “전북북도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며 “위기는 기회로 만들고 기회는 반드시 성공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송 후보는 ▲미래전북 성장동력 ▲활력있는 농산어촌 ▲문화CT여행산업 ▲동반성장 상생경제 ▲새만금 세계캠버터 등 11대 전략 101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지난 4년간 전북이 잘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키워가는 내발적 발전전략으로 전북을 바꿔왔다”며 “춧발정신으로 정권교체를 통한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대한민국을 나라도 운 나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를 지탱하는 ‘든든한 지방정부’를 실현해야 할 때이다”며 “전북을 끊임없이 고이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정자(井) 전북발전의 성장축으로 완성해 새만금권과 혁신도시권, 동부권, 서남권 등 4권 4축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선6기의 성과와 함께는 정책진화를 통해 민선7기 성공의 길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생활형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로화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 대표 민생공약 최대 이슈로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의 대표적인 민생 공약인 생활형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로화가 6.13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4월초 예비후보 등록 후 첫 공약으로 생활형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장기화된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들의 커다란 부담을 덜어주

기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같은 당의 대표주자들인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도 25일 자영업자·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줄이기 공약을 발표했다.

이처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한 공약 채택은 야당까지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카드수수료 0.5% 인하를,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 역시 지역화폐, 핀테크, 경기침체를 통한 카드수수료 제로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소상공인의 결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제로 등 혁신적인 결제수단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